



강북구의회
GANGBUK DISTRICT COUNCIL

의정활동보도

2010년
10월28일
(목요일)
- 1 면 -

서울일보

시민일보

강북, 오늘 제146회 임시회 개최

강북구의회(의장 유근성)는 28일부터 제1차 본회를 시작으로 다음달 5일까지 9일간 제146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6대 의원 개원 후 첫 구정질문을 펼쳐 귀추가 주목된다. 개최 첫날에는 ▲제146회 강북

구의회 임시회 회기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하고, 28일·29일 양일간에 걸쳐 구정질문 및 답변이 진행된다. 또한,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6일간은 현장활동 등 각 상임위원의 활동을 진행한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11월 5일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박승수 기자 pns@seoulbo.net

식품진흥기금조례 개정안등 처리

강북구의회 오늘 임시회

강북구의회(의장 유근성)가 28일부터 내달 5일까지 9일간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제146회 임시회'를 연다.
27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

회에서는 제6대 의원 개원 후 첫 구정질문을 펼쳐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개최 첫날에는 ▲제146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하고, 28일·29일 양일간에 걸쳐 구정질문 및 답변이 진행된다.

이후 휴회 기간인 30일부터 내달 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는 현장활동을 진행하며 임시회 마지막 날인 11월5일 ▲201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진용준 기자 jh@smilbo.co.kr

인터넷 뉴스(한강타임즈)

지방

강북구의회, 제146회 임시회 개최

데스크톱인 2010.10.27 13:13:45

안병욱 | news@hg-times.com

[한강타임즈]

강북구의회(의장 유근성)는 10월 28일부터 제1차 본회를 시작으로 11월 5일까지 9일간 제146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6대 의원 개원 후 첫 구정질문을 펼쳐 귀추가 주목된다.

개회 첫날에는 ▲제146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하고, 28일·29일 양일간에 걸쳐 구정질문 및 답변이 진행된다. 또한, 10월 30일부터 11월 4일까지 6일간은 현장활동 등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진행한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11월 5일에는 ▲201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인터넷기사 바로가기

<http://www.hg-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10>

시사프린트(3면)

“휠체어는 어디로 가지??”

구본승 강북구의원, '장애인 보행로 심각한 수준' 문제점 지적

강북구의회(의장 유근성) 구본승 의원은 지난 20일 강북구 번2·3동 일대의 장애인 보행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제점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구 의원과 취재단, 민주노동당 강북구위원회, 강북구 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이 지역 일대인 영구입대아파트 장애인 보행로 실태조사 결과 총 49건의 개선사항을 찾아냈으며, 이를 지적하고 다음 시정사항을 강북구에 촉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구 의원은 다음 회기 때 구정질문과 함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보행로 점검 및 개선사업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지적사항은 영구입대아파트 지역내 장애인복지관, 보건소, 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실로 이어지는 곳으로 구정관할 보행로 46건, 주공 2·5단지 아파트 내 보행로 3건이다. 유형별로는 턱이 높아 휠체어 통행이 위험한 곳 27곳, 횡단보도 경사로 미설치 및 기형적 경사로 7곳이다. 또한, 보행 장애물이 있어 통행이 어려운 곳 7곳, 보행로 균열 3곳, 높은 경사로 2곳, 좁은 보행로 2곳, 점자 블록 미설치 1곳이 지적됐다.



한편, 횡단보도 내 경사로 미설치된 곳과 경사로를 만들었지만 턱이 높아 통행이 어렵거나 위험한 곳, 보건소 정문 앞쪽 점자 블록 미설치 등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주요 시설 보행로에 대해서는 구민운동장은 최소 3곳에 경사도가 미설치 되었으며, 장애인 복지관 길목에는 3곳이 보행로 턱이 높았다.

웰빙스포츠텔러는 양쪽 길은 보행로 턱이 높아 불편을 겪고 있으며, 장애인이 이용하는 보건소 주변

에는 점자 블록이 미설치 되어있어 시각장애인들의 불편이 시급해 보였다. 또, 턱이 높고 보행로에는 알 수 없는 철판이 높게 설치되어 있어 장애인들의 통행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구본승 의원은 "보행로 문제점은 하루 이틀 만에 예기가 아니라 장애인과 노약자,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 큰 문제점이다"라며 "그동안 강북구청은 무엇을 했는지 의문이 들고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강북구 전체의 보행로를 점검하여 점차 개선해 가겠다"고 밝혔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은 횡단보도 내 경사로 미설치된 지역에서 "한 쪽은 경사도가 되어 있지만 반대쪽은 경사도가 되어있지 않아 어디로 가라는 것인지"라며 "위험한 차도로 인도하는 구청은 즉시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한숨을 쉬며 혀를 내둘렀다.

강북구는 장애인 보행로 시설이 취약한 곳이 한두 곳이 아닌 것으로 이번조사결과 드러났으며, 그동안 지적에 대상이 되었다.

복지예산은 그동안 필요한 곳에 쓰여지고는 있지만 예산이 많지 않은 강북구의 고심도 깊어만 가고 있다.

이번 문제점은 구 복지예산 만이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에 예산편성과 시민을 위한 복지정책이 좀 더 세심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내년도 강북구 예산삭감이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의 장애인 복지정책 개선방안에 대해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영일기자



강북구의회
GANGBUK DISTRICT COUNCIL

의정활동보도

2010년
10월28일
(목요일)
- 2 면 -

시사프리신문(2면)

강북구의회, 일본 다테야마정 의회 의원 접견

상호 협력해 두 도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강북구의회(의장 유근성)는 지난 20일 오전 11시 구의회 제1위원회의실에서 자매도시인 일본 다테야마정 의회 의원 14명을 접견했다. 이

번 예방은 강북구의회와 다테야마정 의회 방문단이 상호 우호친선 교류 증진 등의 대해 논의하고 구의회 의원들과 만나 두 도시가 상호 협력

하여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유근성 의장은 "강북구와 다테야마정의 기관교류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민간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동북아 시대에 상호발전과 번영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오래도록 함께하기를 기원하다"며 환영인사를 전했다.

이후 강북구 의회는 의회가 주관한 환영오찬에서 유근성 의장을 비롯하여 구의회 전의원이 참석해 다테야마정 의회 의원들에게 한국의 음식을 소개하는 등 활발한 교류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시 이야기를 나누며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유영일기자

시사프리신문(10면)

자라나는 꿈나무들 '강북구의회' 견학 큰 호응!!

"이곳이 의회구나~"감탄, '바른의정', '열린의정' 배워가...

강북구의회(의장 유근성)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자라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1시간여 동안 의회 시설을 견학하는 시간을 가져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견학은 초등학교생들에게 의회의 역할과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매년 관내 2개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 시설견학을 실시해 오고 있다.

앞서 지난 19일에는 강북구 관내 오현초등학교 3학년 학생과 선생님 총 15명을 대상으로 의회 견학을 실시했으며, 이어 12일 반동초등학교 3학년 학생과 선생님 총 21명을 대상으로 의회 견학을 마쳤다.

의회방문은 열린사회 북부시민회가 주최하여 진행됐다. 또, 의회를 방문한 학생과 선생님들은 본회의장과 각각 위원회실을 견학하며 '바른의정', '열린의정'을 실현하는 강북구의회의 참 모습을 보고 느끼



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유근성 의장은 "큰 꿈을 가지고 지역과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달라"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앞으로 구의회는 이 나라를 이끌

어 나갈 이 시대의 희망으로서 꿈을 가진 어린이들에게, 남을 위해 봉사하고 더불어 사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주길 바란다는 의미에서 의회 견학은 내년도도 계속 이어갈 전망이다.

유영일기자

시사프리신문(10면)



강북구의회 유근성 의장은 10월 24일 일요일 11시30분 웰빙스포츠 센터에서 열린 '제16회 강북구청장기 배드민턴대회'에

참석하여 대회 관계자 및 선수들을 격려하고 "배드민턴의 국민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 및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회 개최를 축하했다.